



KLPGA 깜짝 우승한 여고생 골퍼 최혜진

## 장타력 + 승부사 기질 슈퍼루키 탄생 느낌팍

고교생 골퍼 최혜진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초정탄산수 용평리조트오픈 우승으로 '슈퍼 루키'의 계보를 이을 선두주자로 부상했다. 8월 23일 이후로는 정식으로 KLPGA 투어에서 활동할 수 있어 남은 시즌 최혜진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인천AG 銀·세계아마선수권 金 2개 두각  
올해 E1채리티 2위·용평리조트오픈 우승  
내달 23일부터 프로활동…지각변동 예고

최혜진을 주목하라!

고교생 최혜진(18·학산여고 3년)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초정탄산수 용평리조트오픈 우승을 차지하자 '슈퍼 루키'의 계보를 이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KLPGA 투어에서 아마추어선수의 우승은 최혜진이 31번째다. 원재숙(48)이 1989년 한국서산여자오픈에서 처음 아마추어 우승자로 등극한 이후 2012년 김효주(22·롯데마트여자오픈)까지 모두 30차례 아마

추어 우승자가 나왔다. 박세리(40)가 6차례로 가장 많고, 송재은(45)이 3차례, 김미현(40)과 임선옥(34)이 2차례씩 아마추어 신봉으로 우승했다.

아마추어 우승자는 KLPGA 1인자의 보증수표나 다름없다. 우승 후 프로에 뛰어들어 곧바로 그린을 팽징하는 것은 물론 여왕의 자리에도 올랐다. 특히 2001년 스포츠토토여자오픈 우승을 차지했던 이미나(36)를 시작으로 송보배(31·2003년 한국여자오픈), 박희영(31·2004년 하이트컵여자오픈), 최나연(30·2004년 ADT캡스인비테이셔널), 신지애(29·2005년 SK엔크린인비테이셔널), 김효주(2012년)는 프로 전향 이후 국내 1인자를 넘어 미국, 일본 등으로 진출해 한국 여자골프를 대표하는 스타로 발돋움했다.

최혜진 역시 그 뒤를 이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일찍부터 프로무대에 모습을 보여온 최혜진은 꽤 만만치 않은 실력을 뽐내왔다. 2015년 롯데마트여자오픈에선 2라운드까지 선두를 달리는 등 마지막까지 우승을 다투기도 했다. 올해는 E1채리티오픈 공동 2위에 오른 데 이어 용평리조트오픈 우승으로 쟁쟁한 프로 선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실력도 무리였다. 중학교 3학년 때 태극마크를 달고 올해로 4년째 국가대표로 활동 중이다. 2014인천아시안게임에선 박경(21), 이소영(20)과 함께 단체인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해 세계아마추어골프팀선수권대회에선 개인전과 단체전 금메달을 싹쓸이했다. 아마추어무대에서선 지존이었다.

기술적으로는 당장 프로무대에서도 1인자를 두고 경쟁할 것이란 평가다. 체격(키 165cm)은 크지 않다. 그러나 드라이브샷으로 250m 이상을 날릴 정도의 장타를 구사한다. 용평리조트오픈 3라운드 5번홀(263m)에선 티샷으로 공을 그린에 올린 뒤 이글을 잡아내기도 했다. 장타력에 더해 공격적이고 승부사적인 기질까지 엿보였다.

1999년 8월 23일생인 최혜진은 다음달 23일 이후 정식으로 프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다. 이번 우승으로 잔여시즌 프로대회 출전이 자유로워진 만큼 막판 KLPGA 투어에 새로운 지각변동을 몰고 올 초대형 루키로 기대를 사고 있다. 최혜진은 "박세리 선배처럼 세계무대에서 뛰고 싶고, 명예의 전당에 가입하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 총 상금 14억원·메이저대회 승격…판 커진 ‘한화클래식’

제시카·넬리 코다 등 해외 스타 출전도 줄이어

한화클래식이 더 커지고 화려해진다.

7회째를 맞은 한화클래식은 올해부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의 메이저대회로 승격됐다. 또 한화금융클래식이던 대회명을 한화클래식으로 변경했고, 총상금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였다. 우승상금 역시 3억원에서 3억 5000만원으로 늘었다. 외국선수들의 출전도 줄을 이으면서 국내선수들과 뜨거운 우승경쟁을 예

고하고 있다.

KLPGA 투어는 지난해까지 총 4개의 메이저대회를 운영해왔다. 한국여자오픈, KLPGA챔피언십, 하이트진로챔피언십, KB금융스타챔피언십이다. 올해 한화클래식을 메이저대회로 격상시키면서 5대 메이저대회 체제로 확대했다. 2011년 시작된 한화클래식의 역사는 7년으로 짧지만, 전신인 한화컵 서울여자오픈이 1990년 창설돼 8년

간 개최됐던 만큼 그 전통을 인정해 메이저대회로 승격했다. 5대 메이저대회 체제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와 같은 방식이다.

올해 한화클래식에는 외국 스타들이 대거 출전한다. LPGA 투어의 '자매 골퍼' 제시카와 넬리 코다의 출전이 확정적인 가운데,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의 베테랑 사이키 미키 등이 출전 의사를 밝혀왔다.

주영로 기자

### 스포츠토토

## 야구팬 50% “KIA 불방망이, SK 꺾는다”

SK 4~5점-KIA 6~7점 예상 1순위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대표 손준철)가 5일 열리는 2017시즌 KBO리그 세 경기를 대상으로 한 야구토토 스페셜 55회차 게임의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전체 참가자의 50.34%는 SK-KIA전(2경기)에서 원정팀 KIA의 승리를 내다봤다. 홈팀 SK 승리 예상은 33.42%에 머물렀고, 나머지 16.24%는 같은 점수대를 점쳤다. 최종 점수대로는 SK 4~5점-KIA 6~7점 예상(5.25%)이 1순위였다.

두산-kt전(1경기)에선 홈팀 두산 승리 예상(50.45%)이 원정팀 kt 승리 예상(34.98%)과 같은 점수대 예상(14.55%)을 압도했다. 최종 점수대의 경우 두산 6~7점-kt 2~3점 예상(5.29%)이 가장 많았다.

넥센-한화전(3경기)에선 홈팀 넥센 승리 예상(42.65%)이 원정팀 한화 승리 예상(39.21%)을 앞섰다. 같은 점수대 예상은 18.24%로 집계됐다. 최종 점수대로는 넥센 4~5점-한화 6~7점 예상(4.65%)이 최다였다. 5일 오후 6시20분 발매 마감된다.

| 야구토토 스페셜 55회차 투표율 중간집계                                                                                                      |              |              |              |       |
|-----------------------------------------------------------------------------------------------------------------------------|--------------|--------------|--------------|-------|
| 경기번호                                                                                                                        | 1경기          | 2경기          | 3경기          |       |
| 홈-원정                                                                                                                        | 두산 vs kt     | SK vs KIA    | 넥센 vs 한화     |       |
| 경기일시                                                                                                                        | 7.5(수) 18:30 | 7.5(수) 18:30 | 7.5(수) 18:30 |       |
| 순위                                                                                                                          | 점수대          | 투표율          | 점수대          | 투표율   |
| 1                                                                                                                           | (6~7)-(2~3)  | 5.29%        | (4~5)-(6~7)  | 4.65% |
| 2                                                                                                                           | (8~9)-(4~5)  | 4.83%        | (4~5)-(8~9)  | 4.50% |
| 3                                                                                                                           | (6~7)-(4~5)  | 4.82%        | (2~3)-(8~9)  | 4.43% |
| 홈팀 승                                                                                                                        | 50.45%       | 33.42%       | 42.65%       |       |
| 같은점수대                                                                                                                       | 14.55%       | 16.24%       | 18.24%       |       |
| 홈팀 패                                                                                                                        | 34.98%       | 50.34%       | 39.21%       |       |
| * 게임방식 : 3경기 6개팀(또는2경기 4개팀) 최종 스코어 맞히기<br>* 표기방식 : 0~1점, 2~3점, 4~5점, 6~7점, 8~9점, 10+(10점 이상) * 발매마감 : 2017. 7. 5(수) 18시 20분 |              |              |              |       |

### 베트맨, ‘7월 건전화’ 이벤트

스포츠토토, 건전하게 즐기고 경품도 받아가세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트맨(www.betman.co.kr)이 7월 건전화 프로그램 이벤트 '건강하고 즐거운 토토생활, 건전화 프로그램이 지켜드립니다!'를 실시한다.

토토팬들의 건전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이벤트에는 베트맨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전화 프로그램인 '셀프진단평가', '셀프구매계획', '건전구매캠페인'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셀프진단평가란 회원 스스로 자신의 게임 성향을 진단해 자신의 게임 몰입도를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셀프구매계획은 과도한 몰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회원 스스로 한 주간 구매금액의 한도와 횟수를 미리 설정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또 건전구매캠페인은 올바른 스포츠토토 구매에 대해 알아보고, 건전구매 가이드라인 지키기를 통해 건

전한 토토 구매 실천을 약속하면 된다.

3가지 건전화 프로그램 중 1개 이상에 참여하면 이번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타격용 선봉기(10명)와 모기퇴치기(10명)를 증정한다. 또 참여자 전원에게는 1인1회에 한해 베트맨 사이트 내의 다양한 경품 응모가 가능한 벳볼 500개를 지급한다. 이번 이벤트는 31일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8월 2일 베트맨을 통해 발표된다. 자세한 사항은 베트맨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스포츠토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포스터·UCC·운영전략 등 총 375팀 참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대표 손준철)가 실시한 '스포츠토토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심사 및 시상식이 6월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다. 국내 대표적 스포츠레저게임인 스포츠토토의 즐거움과 건전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불법스포츠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에는 인쇄포스터 140건, 영상(UCC) 44건, 운영전략 191건 등 3개 부문에 걸쳐 총 375팀이 참가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뽐냈다.

최종 심사에선 1차 실무팀 심사로 선정된 각 부문 상위 5팀을 대상으로 최종 순위를 가렸다. 인쇄포스터 부문에선 '불법스포츠베팅사이트, 공으로 하는 도박입니다'라는 메시지를 간결한 이미지로 쉽게 표현한 박종문 씨가 대상(상장 및 상금 200만원)을 수상했다. '선을 넘지 말고 스포츠토토를 건전하게 즐기라'는 의미를 강조한 동영상을 만든 김영규 씨는 UCC 부문 대상(상장 및 상금 500만원)을 차지했다. 운영전략 부문에선 '100원의 가치를 강조한 건전한 스포츠토토 소매구매 유도방안 전략'을 발표한 조철진·황규진 계명대학생팀이 대상(상장 및 상금 500만원)

수상자로 결정됐다. 이밖에도 인쇄포스터 부문 최우수상 1팀(100만원)과 우수상 3팀(각 50만원)이 선정됐고, UCC 부문 및 운영전략 부문에선 각각 최우수상 1팀(300만원)과 우수상 1팀(100만원), 장려상 2팀(각 50만원)에 상장과 상금이 수여됐다.

케이토토 운영팀 마케팅부장은 "370개 넘는 팀들이 참가해 뜨거운 열기를 보인 이번 공모전에선 반복되는 아이디어와 참신한 기획을 담은 참가자들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케이토토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케이토토 홈페이지(www.ktoto.co.kr)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토토/프로토) 이외 모든 유사 스포츠베팅 행위는 '불법스포츠도박'이며, 이를 이용할 시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 [불법신고] 1899-1119  
www.cleansports.or.kr  
공식발매사이트 www.betman.co.kr



### 김선형-SK 연봉분쟁 해피엔딩으로 끝날까

KBL “6~7일 재정위원회 열릴듯”

프로농구 SK의 간판스타 김선형(29)은 선수등록 마감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구단과 연봉을 합의하지 못해 보수조정신청에 나섰다. 김선형은 2017~2018시즌 보수총액(연봉+인센티브)으로 7억 9000만원을 요구했다. 구단은 6억5000만원을 제시했다.

보수조정은 KBL 재정위원회에서 이뤄진다. 그동안 KBL 재정위는 구단 제시액에서 소폭 상승한 조정금액을 결정 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지만, 2009년부터는 선수 요구액과 구단 제시액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했다.

구단별 샐러리캡은 23억원이다. SK는 김선형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에게 16억9000만원을 소진(69.96%)했다. 잔여 샐러리캡을 김선형에게 전부 안긴다고 해도 6억9100만원까지만 줄 수 있다. 샐러리캡 형편을 고려하면 재정위가 무조건 SK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수가 보수조정신청에 나선 것은 이번이 역대 32번째이자, 2012년 김효범 이후 5년만이다. 당시 SK 소속이던 김효범은 4억6000만원을 요구하며 3억3000만원을 제시한 구단과 평행선을 그었다. 재정위에선 심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양측이 3억6000만원에 합의했다.

KBL은 이번에도 SK와 김선형이 합의할 수 있는 추가시간을 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김선형은 합의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SK 관계자는 “김선형에게 이번 금액(6억5000만원)이 구단에서 제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잘 생각해보고 합의할 마음이면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분위기로는 재정위원회까지 가야 할 것 같다. 김선형이 대표팀에서 합숙훈련 중이기 때문에 재정위원회 일정을 잡기가 어려운 모양이다. 아마 6~7일 즈음 재정위원회가 열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